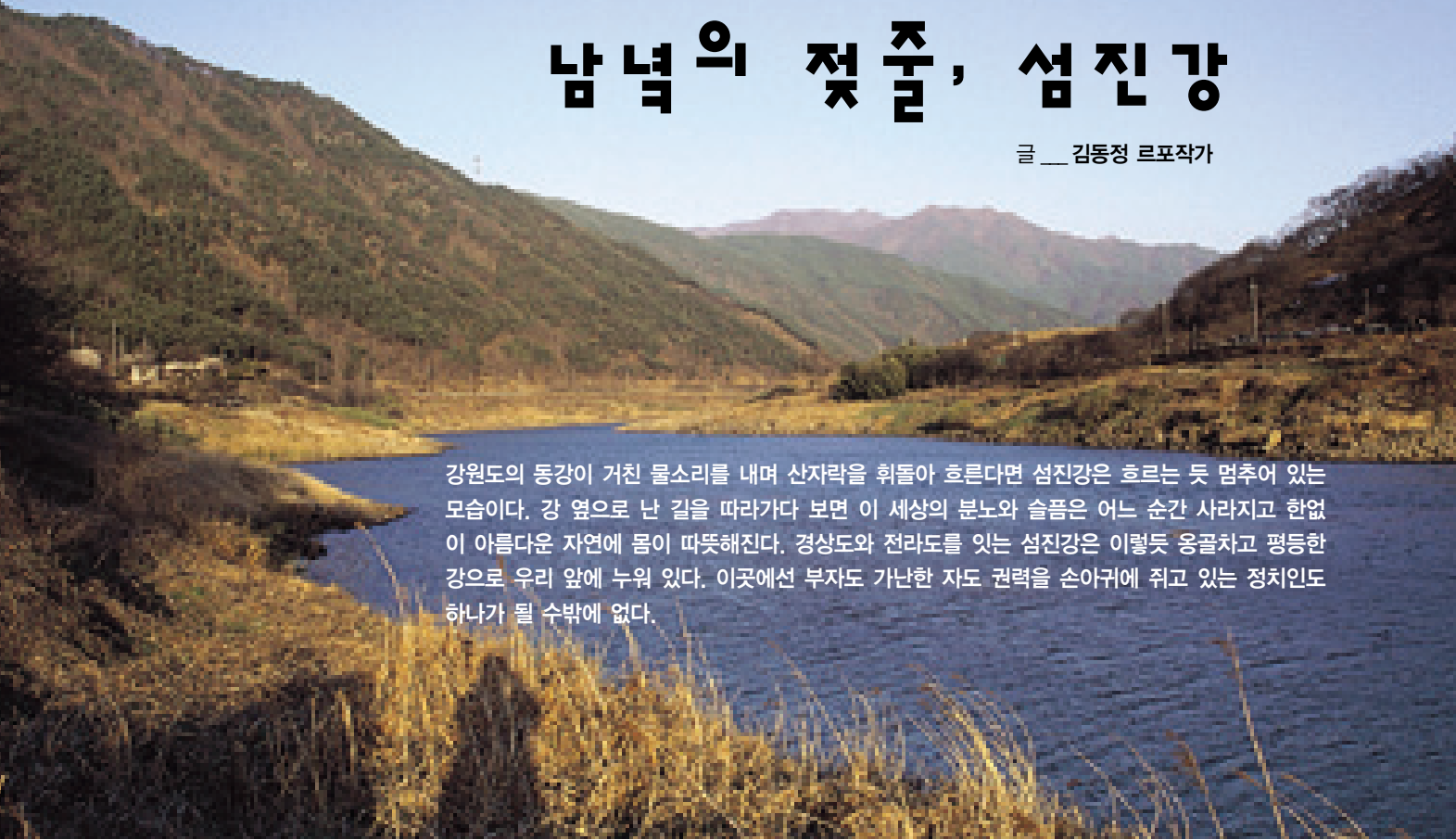


남녘의 젓줄, 섬진강

글 __ 김동정 르포작가



강원도의 동강이 거친 물소리를 내며 산자락을 휘돌아 흐른다면 섬진강은 흐르는 듯 멈추어 있는 모습이다. 강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의 분노와 슬픔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한없이 아름다운 자연에 몸이 따뜻해진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섬진강은 이렇듯 웅골차고 평등한 강으로 우리 앞에 누워 있다. 이곳에선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정치인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멈춘 듯 평등하게 흐르는 강

남도 5백리 길(212.3km)을 유장하게 휘감아도는 섬진강. 봄이 성큼 성큼 다가오는 이즈음의 섬진강은 아름다운 풍경화 그 자체다. 낭만의 강, 서정의 강으로 곧잘 불리는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부락에서 발원해 임실, 곡성, 남원, 구례, 하동땅을 지나 남해 광양만으로 흘러든다. 언제나 푸른 물줄기는 거세지 않고 부드럽게 흐른다. 강원도의 저 동강이 거친 물소리를 내며 산자락을 휘돌아 흐른다면 섬진강은 흐르는 듯 멈추어 있는 모습이다. 강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의 분노와 슬픔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한없이 아름다운 자연에 몸이 따뜻해진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섬진강은 이렇듯 웅골차고 평등한 강으로 우리 앞에 누워 있다. 이곳에선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정치인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오염도가 가장 낮은 강으로 손꼽히며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 강물에서 잡히는 재첩, 은어, 참게는 이곳의 명물이다. 섬진강이 지나는 곳곳에는 강마을들이 어김없이 자리 잡았다. 상, 중, 하류에 걸쳐 강폭이 일정하고 옆으로 회문산, 지리산, 백운산이 접해 있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오백리 물줄기 중 강폭이 가장 깊고 넓은 하동군 탐리 화개마을을 지나면 섬진강은 악양면과 하동읍을 거쳐 남해로 빠진다.

섬진강의 또 다른 이름들

섬진강은 거침없이 흐르는 물줄기만큼이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섬진강의 원래 이름은 구만촌(九灣村)이었다. 택리지에 의하면 '거룻배가 생선과 소금을 실어와 구례 남쪽 구만촌에 부려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독 모래가 많아 다사강, 사천, 기문하, 두치강 따위의 이름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강 곳곳에 매끄러운 자갈과 고운 모래가 도톰하게 깔려 있다. 섬진강은 또 '두꺼비 나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재밌다. 고려 말에 강 하구로 왜구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두꺼비배가 울부짖는 바람에 왜구들이 달아났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강을 따라 지나는 자리마다 머물게 하는 곳, 섬진강

봄을 준비하는 섬진강은 언제 찾아도 아름답다. 특히 3월이면 동백, 산수유, 매화가 강변을 따라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린다. 언 땅을 뚫고 나온 갯가지 새싹들이며 시냇가의 버들개지, 은은한 매화꽃 향기에 노오란 산수유꽃, 그리고 흙갈이를 하느라 분주한 농부들의 모습까지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모습은 길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다.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섬진강은 오늘도 말없이 어서 봄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기차를 타고 둘러보는 섬진강변 경치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준다. 그 여정을 구례구역에서부터 잡아보자. 새마을호를 비롯해 서울에서 떠나는 각종 열차가 서기 때문이다. 승용차로 갈 때도 서울에서 전주와 남원을 거쳐 곡성을 돌아 섬진강변 도로를 타고 가면 구례구역으로 이어진다. 곡성에서 시작해 구례구역에 이르는 17번 국도는 우리나라에서 강변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곡성군에서도 압록역과 마주한 압록마을은 섬진강이 낳은 이상향(理想郷)이다. 앞으로는 푸른 강이 넘실거리고 뒤로는 골 깊은 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다. 강물은 이곳 압록유원지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 더 큰 강폭을 이루며 유유히 흘러간다.

아직 이른 철이지만 섬진강 하면 산수유꽃이 떠오른다. 섬진강변에서 산수유꽃을 가장 진하게 볼 수 있는 곳은 구례 산수유마을이다. '두 번 개화한다'는 산수유꽃은 봄소식을 전하는 첩병이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 상위 마을은 국내 최대의 산수유 군락지이다. 백년이 훨씬 넘는 나무가 이만여 그루나 된다. 특히 상위 마을은 돌담 사이로 웅기종기 모인 초가를 둘러싸고 노란 산수유꽃이 눈부신 자태를 뽐낸다.

한편, 산동마을을 둘러보고 가까운 화엄사나 천은사에 들렀다가 화개장터, 평사리, 경남 하동으로 이어지는 19번 국도를 타면 또다른 감동에 휩싸인다. 길이 워낙 아름다워 가슴이 싸해진다.

지리산과 섬진강은 그 품안에 절집들을 여러 개 숨겨 놓았는데 천은사와 쌍계사, 화엄사, 연곡사, 칠불사가 그것들이다. 구례 산동마을에서 가까운 화엄사는 지리산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크고 장엄하다. 경내에 있는 각황전(국보 제67호)은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또한 각황전 한쪽에는 두 개의 탑이 나란히 서 있는데 각각 보물 제 132호와 보물 제 1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다 각황전 앞 돌계단을 오르면 3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우담바라' 꽃 모양의 석등(국보 제12호)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화엄사 입구 지장암 옆에는 벚꽃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는 울벚나무(천연기념물 제38호)가 서 있다.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오르다 만나게 되는 천은사는 규모는 작지만 소박함이 물씬 묻어난다. 절 입구 수홍루 아래로 흐르는 감로천의 맑은 물은 속세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준다. 천은사 옆으로 난 지리산 횡단도로는 노고단(성삼재)을 정점으로 정령치 입구를 지나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심원마을과 계곡이 아름다운 뱀사골을 가로질러 함양 마천과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어진다.

구경 한번 와보세요~ 화개장터

섬진강과 화개천이 만나는 화개 입구에는 화개장이 선다. 김동리의 단편소설 <역마>의 무대이기도 하다. 6일과 11일마다 서는 5일장은 새로 지은 상가 앞에서 좌판이 벌어지는 것이 고작이건만 시골 장 특유의 분위기는 여느 곳과 다를 바 없다. 장날이면 지리산 특산물인 약초, 산채, 벌꿀, 더덕 따위가 솔하게 쏟아져 나와 방문객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화개마을에서 1023번 국도를 타고 들어가면 쌍계사가 나온다. 화개면 운수리에 있는 쌍계사는 신라 불교의 중심지이다. 신라 성덕왕 23년에 의상의 제자 삼법이 창건했다. 절 이름을 쌍계사라고 붙인 것은 절의 좌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두 갈래의 물이 대표소 바로 앞 다리 아래에서 합쳐지기 때문이라 한다. 쌍계사에서 2km쯤 산길을 따라 오르면 지리산 제1폭포인 불일폭포와 만난다. 동쪽으로는 청학봉 서쪽으로 백학봉의 두 계곡을 끼고 있는 폭포는 높이 60미터 폭 5미터로,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는 귓전을 세차게 파고든다.

화개는 우리나라 차 시배지로 4월 20일쯤 햇차를 따낸다. 쌍계사 옆 대나무밭엔 맨 처음 차나무를 재배한 곳이라는 '차 시배지'가 있다. 이곳에서 다시 큰길로 나와 북쪽으로 5분 정도 올라가면 화개천을 건너 차의 명산지 모암마을에 이른다.

차와 함께 지리산의 명물이 있으니 바로 고로쇠약수다. 지리산과 섬진강은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면 섬진강은 또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

찾 아 가 는 길

자가용

수도권 :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 17번국도 - 남원 - 구례, 곡성, 화개, 하동

영남권 : 남해고속도로 - 하동.C - 하동읍 - 국도19호선을 타고 섬진강 따라 - 화개

대중교통(하동이나 구례까지 가는 버스나 기차 이용)

기차 : 전라선을 타고 구례구역에서 하차

고속버스 : 하동버스터미널이나 구례터미널 - 화개와 쌍계사, 산수유마을로 가는 버스

